

최대 66척의 피더 컨테이너선 발주 협의 중: 미포에 수혜 기대

코멘터리

신조선가지수는 15주 째

① 128p 제자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미포조선이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37.5m에 수주했는데, 더 구체적인 스펙에 따라 신조선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수주 달성율은...

②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별도) 조선, 현대미포조선이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해양 공백 때문이고, 현대삼호중공업의 달성률은 92%에 달하고,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의 조선 달성률은 51%로 나쁘지 않습니다.

LNG선 수주가 계속.

- ③ 지지난주에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의 Seatanekr 1척이 클락슨에 입력되었고, 해당 보도에서 Fredriksen이 현대중공업에도 2척의 LNG선을 계약한 것으로 잡힙니다.
- ④ 또한 현대중공업은 프랑스 EDF 용선의 NYK 발주로 LNG선을 올해 초에 1척에 이어 지난주에 1척을 추가 수주했습니다.

최대 66척의 대규모 Feeder선 발주에서 현대미포조선이...

- ⑤ Evergreen이 2,400-teu 최소 4척~12척, 1,800-teu 4척~12척 발주를 위해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조선사와 협의 중입니다. 2020년초 단납기를 원하지만 조선사들의 슬롯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 선주는 2년 전 2,800-teu 20척을 대만 CSBC와 일반 이마바리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 ⑥ 또한 라이벌 Wan Hai도 2,800-teu 8척~12척, 1,900-teu 12척~16척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 ⑦ 또 또한 Yang Ming도 2,800-teu 10척 + 옵션 4척을 발주 예정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의 중소형 야드와 경합이 있겠지만, 38척~66척의 대규모 피더선 발주에서 현대미포조선의 일부 수주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동사는 올해 피더선 12척을 팬오션과 일본 선사들로부터 수주했는데, 일본의 한국으로의 발주 사유 중 하나는 단납기 슬롯 때문이었습니다.

66척 경합에서도 미포가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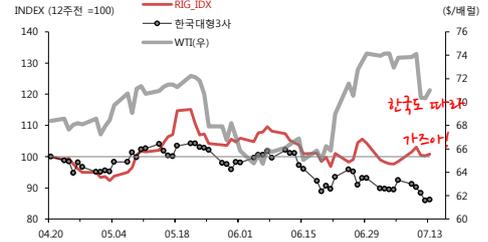
현대미포조선의 6월까지 수주는 30척, 6월은 5척에 불과했지만, 6월에 알려진 20여척의 LOT들이 7월에 다수 본계약 및 수주인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시장에 잡힌 Feeder선 발주 의향: 무려 38척~66척, 최대 21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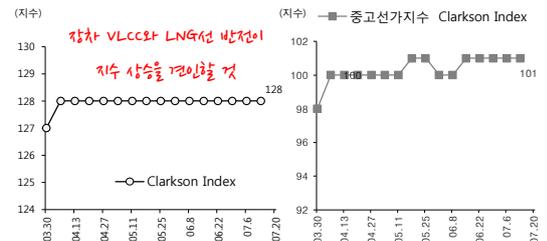
발주처	teu	최소	최대	척당(\$m)	최대(\$m)
Evergreen	2,400	4	12	34	408
	1,800	4	12	28	336
Wan Hai	2,800	8	12		432
	1,900	12	16		464
Yang Ming	2,800	10	14		504
		38	66		2,144

대표 차트

▶ 유가, RIG PLAYER, BIG3



▶ 신조선가 지수: 이해할 수 없는 정체, 15주 째



▶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상반기 수주 달성율: 30%~50%

조선사	선종	2017 목표	2017 수주 마감	2018 목표	2018 수주: ~ 6월	달성률
		백만\$	척수	백만\$	척수	백만\$
현대중공업	해양	1,600	262	1,600	0	-8
	LNG		8		3	
	+ FSRU					
	LPG		4		5	
	컨선		7		4	
	탱커		19		8	
별크			10			
HHI 합	HHI합	4,300	48	4,702	6,800	20
	컨선		4		7	
	탱커		22		11	
	LNG선				5	
	가스선		4		2	
	기타		9		2	
HS 합	HS합	2,500	39	2,826	3,400	27
	현대중조선	6,800	87	7,528	10,200	47
현대미포조선	LPG				3	
	PC선		51		15	
	RORO		9			
	컨선				12	
	비나신		4			
	별크					
현대미포 합	HHI합	1,600	64	2,324	3,000	30
	플랫폼		1	1,300	2,700	
	FLNG		1	2,500		
	LNG		5	800	5	900
	+ FSRU				5,500	
	컨선		6	800	8	800
탱커		15	1,500	13	800	
SHI 합		6,500	28	6,900	8,200	26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현대미포조선을 위한 피더선 38척~66척 입찰 중

- ▲ Evergreen 8척~최대 24척 피더 컨테이너선 발주 협의 중
- ▲ Wan Hai도 피더선 최대 28척 발주 의향
- ▲ YangMing도 최대 14척 피더선 발주 준비

LNG

NYK, EDF 용선발주로 현대중공업에 LNG선 2호선 발주
Fredriksen, DSME 1척에 추가로 현대중공업에 2척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지수, 중고선가지수 또 제자리

- 신조선가는 전선종 포함, 중고선가는 케이프벌크선만 상승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 시추

△ **아부다비 Adgas의 IGD-2 확장 입찰 결과**

- 최대 6개 업체가 Commercial offer를 7월9일 제출했고, 8월초 발주처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
- 사업 지분은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자회사 Adgas가 70%, 일본의 Mitsui가 15%, BP 10%, Total이 5% 보유
- 기존 1) 인도 Larsen & Toubro (L&T) + US-based CB&I(McDermott가 인수), 2) Tecnicas Reunidas(스페인), 3) Technimont(이태리), 4) Fluor(미국), 5) Petrofac(영국) + NPCC(아부다비), 6) Archirodon(그리스), Worley Parsons(호주) + 현대중공업의 6개 컨소시엄이 경쟁 중인 것
- 으로 알려졌다지만 입찰 참여 여부는 알려지지 않음
- Petrofac + NPCC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

(04월4주) △ **아부다비 Adgas의 IGD-2에 6개 컨소시엄 경쟁: HHI**

- Adgas(Abu Dhabi Gas Liquefaction Company)의 10억\$ 규모 IGD(Integrated Gas Development)-2에 6개 제작사들이 경쟁 중
- 6개 업체가 4월에 Technical Bidding을 제출했고, 올해 중반 Commercial Bidding을 거쳐, 하반기 본계약을 기다림
- 1) 인도 Larsen & Toubro (L&T) + US-based CB&I(McDermott가 인수), 2) Tecnicas Reunidas(스페인), 3) Technimont(이태리), 4) Fluor(미국), 5) Petrofac(영국) + NPCC(아부다비), 6) Archirodon(그리스), Worley Parsons(호주) + 현대중공업

▶ IMO 2020

△ **Astomos, 일본 시장에서 LPG 추진선에 집중**

- 일본의 LPG선단이자 트레이더 Astomos Energy는 일본 선사들에게 LPG추진선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
- Astomos는 LPG 추진선 도입을 위해, Statoil(Equinor로 사명 변경), Elgas(호주), Enos Glob(일본), Gyxis(일본)과 agreement를 체결
- Astomos는 LPG 추진이 LNG 추진과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LNG 추진 방식의 비용 편익, 문제점이 생길 경우 LPG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이전의 LPG추진선은 이미 1) Exmar가 한진중공업에 발주한 VLGC 2척에 도입키로 한 바 있고 2) Dorian LPG는 현대글로벌서비스와 VLGC 10척에 LPG추진 엔진 적용 retrofit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H-Line(포스코 용선), 현대중공업에 LNG 추진 벌크선 발주 검토**

- H-Line은 현대중공업과 LNG-fuelled 케이프 벌크선 발주를 고려 중: 포스코 용선 기반, 180k-DWT 2척, 2020년 하반기 인도
- 신조선가는 기존 스티터빈보다 20%~25% 높을 것으로 전망: 케이프 벌크선 신조선가는 \$48m인데, LNG추진선은 \$60m에 달할 것으로 판단됨

▶ LNG

△ **Flex, 인도받은 LNG선 S&LB으로 자금 부담 낮춤**

- John Fredriksen의 Flex LNG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174k-cbm LNG선을 sale-and-leaseback 완료
- 이 선박은 유럽 에너지 회사에 6개월 + 3개월 용선 예정

▲ **Fredriksen, DSME 다음 현대중공업에도 LNG선 2척 추가 발주: 5척 건조**

- 지난주 Sea tanker가 DSME에 발주한 1척은 옵션 행사인 것으로 전해짐: 이전 FLEX LNG의 2척 계약에 딸린 옵션으로 총 3척의 LNG선을 건조
- 또한 추가로 Fredriksen은 현대중공업에도 2020년 인도로 174k-cbm LNG선 2척을 추가 발주해, 총 5척을 건조하게 됨

▲ **EDF 용선으로 NYK, 현대중공업이 LNG선 1척 추가 발주**

- EDF는 NYK와 2번째 LNG선 용선을 계약: 7년 확정+ 13년 연장 옵션
- 그리고 이 2호선도 현대중공업(삼호)에 발주: 2020년 4월 인도
- NYK는 LNG선 관리사인 GazOcean과 함께 투자하기로 결정: 이 회사는 NYK가 지분을 보유한, 과거 Engie에서 Total로 LNG 사업 매각의 일부

(02월1주) ▲ **NYK의 프랑스 EDF Energy를 위한 LNG선 1척 용선 발주: 신조선가 \$200m**

(01월5주) ▲ **EDF Energy의 LNG 용선발주를 NYK 등이, 현대중공업에 1척**

- 프랑스 EDF Energy는 미국 Corpus Christi LNG 프로젝트에서 0.77MTPA를 수입하기 위한 LNG선 발주를 진행 중이었는데
- 이미 작년 9월 현대중공업을 건조처로 선정했고
- 최근 용선발주 선사 입찰을 거쳐 NYK+GazOcean(NYK와 Engie의 합작사)를 선정
- 이로써 1년 이상 끌어온 LNG선 발주가 결정: 180k CBM, 2020년 인도

△ **MOL, Swan Energy의 FSRU 옆에 불일 FSU 물색**

- MOL은 이미 Swan Energy의 FSRU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 가스 수입에서 일조이 추가 저장 버퍼를 확보하기 위해 FSU 용선 공급 계약도 따냄: 이에 따라 FSU를 물색 중, 135k~145k-CBM 용량 필요
- 기존 MOL의 LNG선을 투입할 수도 있지만, 여유있는 선박이 없어 FSU를 시장에서 물색 중

(17년9월) ▲ **Swan Energy → 현대중공업, FSRU 1기**

- 인도 Swan Energy의 FSRU 프로젝트를 현대중공업이 따냄: 5MTPA 기화용량, 180k CBM 저장용량, Gujarat 지역
- 2019년 커미셔닝을 거쳐, 2020년초 가동을 시작하고, BOOT로 30년간 운영 예정: 이미 인도 현지의 3개 업체로부터 1MTPA 씩 판매계약을 체결
- 또한 Swan Energy는 2번째 FSRU 투입을 검토 중

△ **MOL의 FSRU 사업 확대 계속**

- MOL은 Swan Energy의 FSRU 소유권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 보유
- 또한 인도네시아 Java-i 프로젝트의 JV 지분 참여도 물색 중
- 40년의 LNG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우루과이, 브라질 등에서도 FSRU 사업 기회를 찾고 있음
- 아시아, 남아프리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설명

△ **나이지리아의 LNG Train 7에서 8MTPA 증산 추진**

- Nigeria LNG는 Train7 확장을 위해 70억\$의 자금을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조달 추진
- 최근 Saipem, Chiyoda, JGC 컨소시엄이 KBR, TechnipFMC와의 FEED 경쟁에서 승리
- Train 7이 확장될 경우, 나이지리아의 LNG 캐파는 기존 22MTPA에서 30MTPA로 늘게 됨
- NLNG는 NNPC가 49%, Shell 25.6%, Total 15%, ENI가 10.4% 지분을 보유
- >> 나이지리아에서도 8MTPA, 즉 15여척의 LNG선 수요가 장기 만들어집니다.



▶ 기타

▲ 중국의 Tier-II 선박 제재로, S&P 시장 요동

- 중국 MSA(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은 벌크선에서 pre-IMO Tier II 선박의 화물 수입을 불가하는 방침을 확정: 2달 내에 발효
- Teir II는 2011년 1월부터 Keel Laying 된 선박
- 기존 벌크선의 경우 18년 선형에서 15년 정도로 줄일 것으로 시장은 기대했지만, 이로써 7년 정도 선형으로 급격히 조정된 셈
- 여객선은 10년, 탱커는 12년, 컨테이너선은 20년으로 허용 중
- 이로써 2011년 이전 건조 벌크선 선가가 크게 빠지고, 2011년 이후 건조 선박의 중고선가가 상승 중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①Central Shpg Monaco→Hyundai Samho HI, TK(157k) 2척

-알려지지 않은 수에즈막스 2척 수주

②Seatankers Mgmt→Daewoo (DSME), LNG(173,400-CBM) 1척

(07월2주 플래쉬) ▲ Fredriksen의 Seatanker,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1척 발주
 - Fredriksen은 개인 회사 SeaTanker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1척 발주
 - 173,400-cbm, ME-GI + re-liquefaction system, 2020년 인도: 관심의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음
 -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LNG선 12척, FSRU 1기, VLCC 15척을 수주
 (03월2주) ▲ Flex LNG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2척의 LNG선 발주
 - 지난해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현대중공업의 LNG선 2척 수주와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2척 수주는, Flex LNG인 것으로 업데이트
 - 4척을 추가함으로써, Flex의 LNG 선대는 10척으로 늘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Evergreen 8척~최대 24척 피더 컨테이너선 발주 협의 중

- Evergreen Marine은 최대 24척, \$740m 규모의 피더선 발주를 진행 중
- 2,400-teu 4척 ~ 최대 12척, 1,800-teu도 최소 4척 ~ 최대 12척
- 발주는 직접 발주 또는 용선 모두를 검토 중이며,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조선사들이 입찰 중
- 선박의 상세 스펙은 알려지지 않음: 사측은 비싼 Tier III보다 Tier II 스펙을 원하고 있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신조선가는 1,800-teu가 \$28m, 2,400-teu가 \$34m 안팎일 것으로 짐함
- 선박 인도는 사측은 2020년초로 단납기를 원하지만, 해당 Berth를 보유한 조선사가 없어, 2020년 중반 납기가 될 것으로 추정됨
- Evergreen은 2년전 이미 2,800-teu 20척을 대만 CSBC와 일본 Imabari에 발주한 바 있어, 또다시 20여척을 발주하겠다는 투자의향이 시장을 놀라게 함

△ Wan Hai도 피더선 최대 28척 발주 의향

- Evergreen의 라이벌 Wan Hai Line도 2,800-teu 8척 ~ 12척, 와 1,900-teu 12척 ~ 16척 발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짐

△ YangMing도 최대 14척 피더선 발주 준비

- YangMing도 확정 10척 + 옵션 4척의 2,800-teu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함

▲ Sincere Navigation, STX에서 MR 건조 불발로, 여타 조선사 모색

- Sincere Navigation은 STX조선에 MR을 발주하며 시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KDB의 RG 불허로 불발: 신조선가 \$35.5m
- 이에 Sincere Navigation은 다른 조선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함
- Sincere는 핸디 벌크 2척, 캄사라막스 23척, 케이프벌크 9척, VLOC 1척, VLCC 3척의 17척 선박을 보유한 선사
- >> 현대미포조선의 수주를 기대합니다.

▲ H-Line(포스코 용선), 현대중공업에 LNG 추진 벌크선 발주 검토

- H-Line은 현대중공업과 LNG-fuelled 케이프 벌크선 발주를 고려 중: 포스코 용선 기반
- 180k-DWT 2척, 2020년 하반기 인도
- 신조선가는 기존 스텐터빈보다 20%~25% 높을 것으로 전함: 케이프 벌크선 신조선가는 \$48m인데, LNG추진선은 \$60m에 달할 것으로 판단됨

▲ Fredriksen, DSME 다음 현대중공업에도 LNG선 2척 추가 발주: 5척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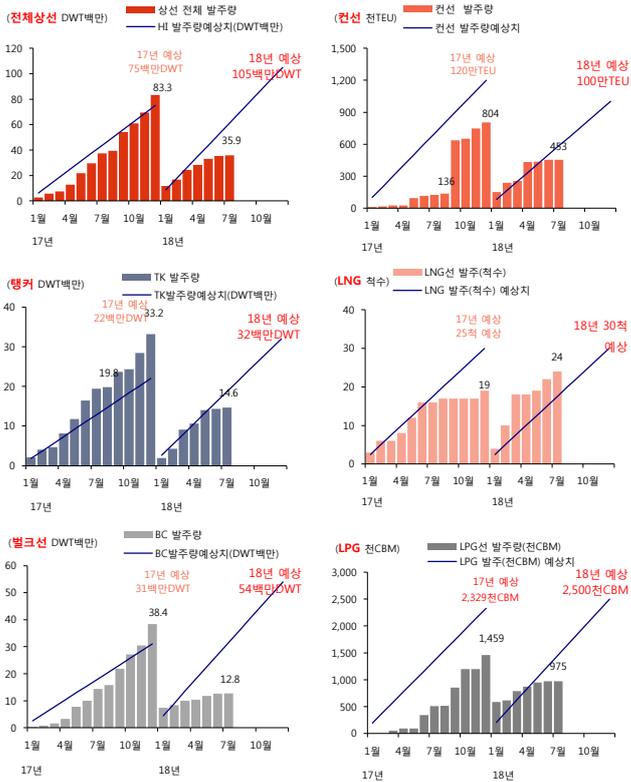
- 위의 LNG 섹션 참조

▲ EDF 용선으로 NYK, 현대중공업이 LNG선 1척 추가 발주

- 위의 LNG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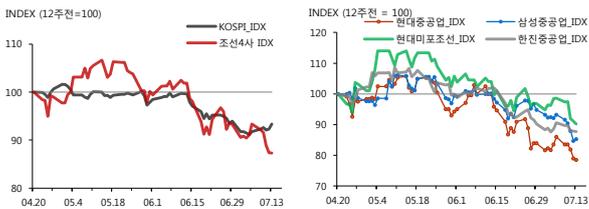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8년06월3주								
한국	Daewoo (DSME)	18.6.21	유럽	Maran Gas Maritime	LNG	173k cu.m.	2020	1
	Hyundai HI (Ulsan)	18.6.19	유럽	Thenamaris	LNG	174k cu.m.	2020	1
	Daehan Shipbuilding	18.5.28	유럽	Tsakos Energy Nav	TK	114k DWT	2020	2
	민영	Jiangsu Hantong HI	18.2.1	Unknown	Carl Buttner	PTK	38k DWT	2019
일본	Chengxi Shipyard	18.6.20	아시아	Nova Shpg & Log	OTHERS	70k DWT	2020	4
	CMHI (Jiangsu)	18.6.10	유럽	Offshore Heavy	OFF-기타	#VALUE!	2020	1
	Sumitomo (Yokosuka)	18.5.1	유럽	Thenamaris	TK	112k DWT	2020	1
	Imabari SB (Imabari)	18.6.15	일본	K-Line	BULK	100k DWT	2021	1
	Oshima Shipbuilding	18.6.15	일본	Asahi Shipping	BULK	99k DWT	2021	1
18년06월4주								
BIG6	Hyundai Mipo	18.6.29	일본	Nissen Kaiun	CONT	2k TEU	2019	4
		18.6.22	아프리카	E.A. Temile & Sons	LPG	23k cu.m.	2020	1
	Unknown	Unknown	Hyproc Shipping Co.	PTK	40k DWT	2019	1	
	Samsung HI	18.3.1	Unknown	Unknown	TK	319k DWT	2019	4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8.6.25	한국	Korea Shpg Corp	BULK	20k DWT	2020	2
중국	Huangpu Wenchong	18.6.27	중국	CSSC Shpg Leasing	BULK	120k DWT	2020	4
민영	Jiangsu New YZJ	18.6.26	중국	SIIC	CONT	2k TEU	2020	2
	Haitong Offshore Eng	18.2.1	중국	Unknown Chinese	PTK	13k DWT	2019	1
	Ningbo Xinle SB	18.6.25	유럽	Nova Marine Carriers	BULK	6k DWT	2019-2020	12
						8k DWT	2019-2020	6
일본	Shin Kurushima	18.2.1	일본	Unknown Japanese	PTK	5k DWT	2019	1
	Iwagi Zosen	18.1.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63k DWT	2019	1
	Honda Zosen K.K	18.2.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k DWT	2019	1
						2k DWT	2019	1
		18.1.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k DWT	2018	1
	Toyohashi SB	18.5.1	Unknown	Unknown Japanese	BULK	61k DWT	2019	2
	Naikai Zosen Setoda	18.1.1	일본	Kuribayashi Steamshi	BULK	7k DWT	2019	1
	JMU Ariake Shipyard	18.1.1	일본	Unknown Japanese	TK	311k DWT	2019	1
	JMU Maizuru Shipyard	18.6.22	아시아	Wisdom Marine Group	BULK	82k DWT	2020	1
	Kyokuyo Shipyard	18.5.31	아시아	TS Lines	CONT	1k TEU	2019	2
		18.1.1	일본	Unknown Japanese	OTHERS	250k cu.ft.	2019	1
	Asakawa Shipbuilding	18.1.1	Unknown	Unknown	PTK	18k DWT	2019	1
18년07월1주								
BIG6	Hyundai Samho HI	18.3.1	Unknown	Unknown	LPG	80k cu.m.	2019	2
	Daewoo (DSME)	18.7.3	유럽	Maran Gas Maritime	FSRU	173k cu.m.	2021	1
	Hyundai HI (Ulsan)	18.5.1	유럽	Solvang ASA	LPG	80k cu.m.	2019	1
민영	Jiangsu New YZJ	18.7.2	유럽	KCC AS	BULK	84k DWT	2020	1
18년07월2주								
BIG6	Hyundai Samho HI	18.7.6	아프리카	Central Shpg Monaco	TK	157k DWT	2020	2
	Daewoo (DSME)	18.7.5	유럽	Seatankers Mgmt	LNG	173k cu.m.	2020	1
민영	Jiangsu New Hantong	18.5.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82k DWT	2020	2
일본	Kawasaki HI Sakaide	18.7.6	일본	Central LNG Shipping	OTHERS	4k cu.m.	2020	1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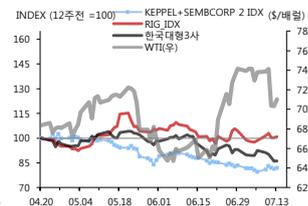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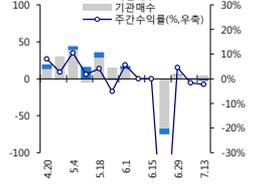
▶ 조선6사 수급



▶ 한진중공업



▶ HSD엔진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20억달러 해양플랜트 입찰, 한국 vs 싱가포르 '2파전'

<http://lnr.ii/mlf3v>

셴코프 마린은 한국 조선소들에 여러 차례 '쓴잔'을 마시게 한 주인공
지난해 노르웨이 석유회사 스타토일이 발주한 '요한 카스트버그'(Johan Castberg) 해양플랜트 입찰에서 국내 조선 3사를 제치고 일감을 따낸 로열더치셀이 발주한 멕시코만 '비토(vito) 프로젝트'의 부유식설비(FPU) 물량도 오랫동안 거래가 많았던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유력시됐으나 결국 셴코프 마린의 손으로 국내 조선소 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2014년 이후 해양플랜트 일감을 한 건도 따내지 못했다

▲ “해운산업 재건 시동”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http://lnr.ii/nfakO>

공사는 해수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선사의 선박 확충 지원에 집중할 계획
2020년까지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지원하겠다는 목표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미포조선, 美 선주사와 841억 규모 운반선 2척 수주

<http://lnr.ii/mdCfN>

미국 소재 선주사와 841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3일 공시

▷ 현대중 노조, 1사1노조 시행...하청 노동자도 조합원

<http://lnr.ii/Ea2zJ>

현대중공업 노조가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사 1노조'를 시행
시행규칙은 노조가 지난해 9월 '1사1노조' 원칙을 주장하며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 노조), 일반직지회(사무직 노조)와 통합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일부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 삼성중공업 보도

▽ 첫 한국형 LNG선 화물창에 하자...75일째 운행중단

<http://lnr.ii/YoqW>

LNG 운송을 위해 지난 4월 23일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 도착한 국적 27호선이 75일째 미국에 정박 중
선적 사전작업을 하던 중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의 내부경계공간 이슬점이 상온으로 측정
SK해운은 대체선박 투입에 따른 비용 약 172억원을 두고 삼성중공업(010140)과 소송을 진행 중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197억원을 들여 국책과제로 KC-1을 개발
화물창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 시트 제작이 차질을 빚으면서 선박 인도가 5개월가량 늦어졌
이 때문에 SK해운이 삼성중공업에 지체상금 약 200억원을 청구해 현재 중재가 진행 중
2척 중 다른 1척인 국적 26호선에서도 문제가 발견

△ 삼성중 외국인이파트 (썬랜드씨에 매각

<http://lnr.ii/ghwCk>

썬랜드씨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대지면적 1만7568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12층 4개동 18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인수
선주 측 매니저 및 엔지니어 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임대 전문기업
삼성빌리지는 대지면적 1만4022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15층 총 282세대 규모로 지난 2009년 5월 준공한 삼성빌리지는 ...
... 그동안 외국인 전용아파트로 운영 돼 왔으나 조선경기 불황에 이은 대형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공실율이 높았다

▶ 대우조선해양 보도

△채권단, 대우조선 매각방안 만든다

<https://bit.ly/2NdvwP>

채권단이 올해 하반기 중 대우조선해양 매각 방안 마련에 착수
채권단은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이 대폭 호전된 만큼 내년을 매각의 적기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의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서는 안된다"며 ...
... "손 놓고 있다가 매각시기가 늦어지면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 위해선 우량 사업부문(굿컴퍼니)과 비우량 사업부문(배드컴퍼니)으로 분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대우조선해양 사업부문은 컨테이너선-LNG선 등이 포함된 상선부문, 잠수함 등의 특수선부문, 부실원인이 됐던 플랜트부문 등 3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로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당위성 차원에서 거론되어옴
다만 정부는 대형 조선소 사업재편에 대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대우조선해양 "드릴십 2척 6천725억원에 매각 확정"

<https://bit.ly/2ufBxe>

대우조선해양은 드릴십 2척에 대한 매각 협상을 벌여 6천725억원에 매각하고 선수금을 수령했다고 12일 공시
회사 측은 "올해 3월 23일 미 법원은 당사와 선주 합의에 따른 드릴십 2척의 건조 계약 해지를 승인해 양 당사자 간 건조 계약은 해지됐다"고 설명



▶ 중소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 HSD엔진, 7년만에 무차입경영 돌입할까

<http://lnr.li/QUcOn>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엄을 새 주인으로 맞는 과정에서 135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건전성을 높였
2010년 말 HSD엔진은 4460억원의 차입금(단기차입금 350억원, 장기차입금 2130억원, 회사채 1980억원)을 보유
당시 현금성자산이 4960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차입 경영이나 다름없었던 셈

▷ HSD엔진, 경영진 전면 개편...'선박영업·재무관리' 방침

<http://lnr.li/kOqMv>

신임 고 사장(사진)은 기존 사내이사였던 김동철 대표와 김일도 전무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고영열 대표와 김관식 부사장이 새로 임명
1982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17년간 기획·구매·IR(Investor Relations)·선박영업 등 다양한 부서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선박엔진의 70%가량을 HSD엔진으로부터 조달: HSD엔진은 매년 매출의 30% 안팎을 대우조선해양과의 거래로 확보
김관식 부사장(사진)은 최근 10여년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간 관리를 전담

▷ HSD엔진, 선박용 중속엔진 사업 철수하나

<http://lnr.li/SBC8Y>

선박용 중속엔진 사업을 잠정 중단: 일각에선 HSD엔진이 설비 유지비용, 불투명한 업황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속엔진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관측
2009년 818억원, 2010년 1343억원, 2011년 1402억원으로 늘어났던 HSD엔진의 중속엔진 신규수주액은 2012년 200억원 안팎으로 급감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 전략은 중속엔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렸던 게 맞다"며 ...
... "하지만 이번에 회사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속엔진에 대한 경영 방침이 어떤 식으로 수립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

△ 한진중공업, 723억원 규모 주택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https://bit.ly/2uiuDFZ>

한진중공업[097230]은 '대흥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9일 공시
낙찰금액은 723억원으로 작년 연결 매출액의 2.95%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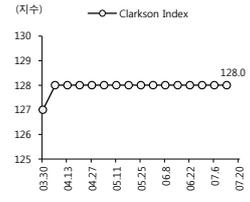
△ 세진중공업 등 조선기자재기업 '스마트공장'으로 도약

<http://lnr.li/pxG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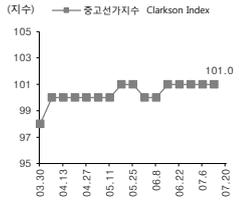
공급망 관리(SCM) 시스템을 갖추고 장소에 상관없이 실시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
시스템 덕분에 제조 시간인 리드 타임을 1.7일(120일→118일) 줄였
협력업체 생산성을 보면 대표 제품 모델의 생산시간을 588시간에서 563시간으로 15시간 이상 크게 단축하는 성과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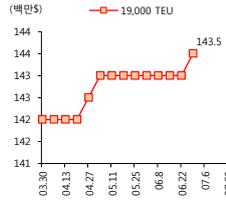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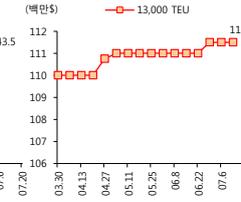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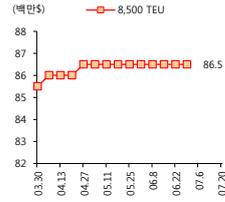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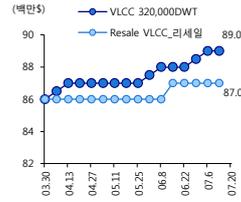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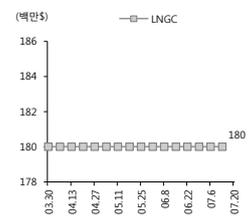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t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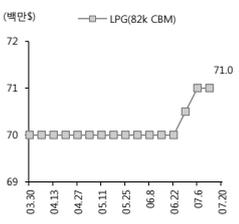
▶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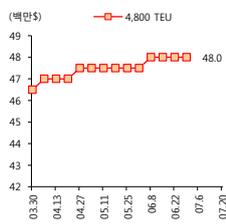
▶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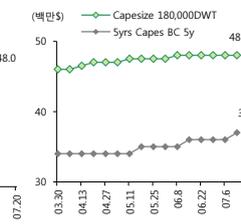
▶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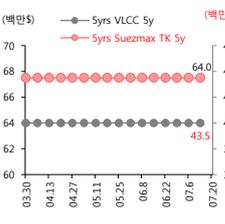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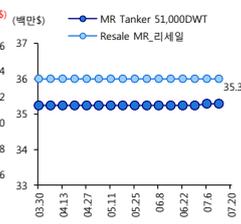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 VLCC, 수에즈막스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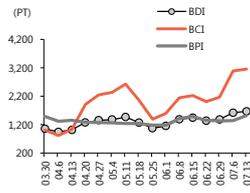


▶ MR 탱커 신조 vs 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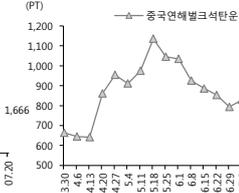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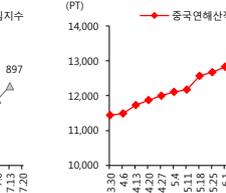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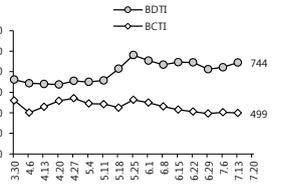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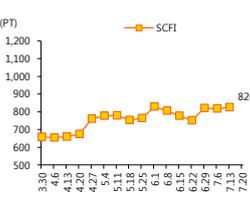
▶ 중국 연해 석탄 화물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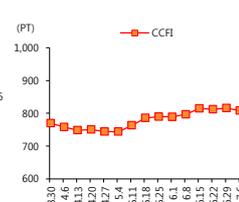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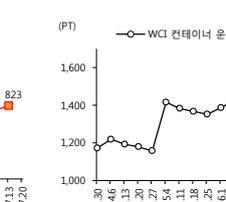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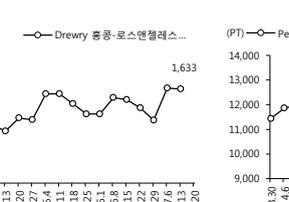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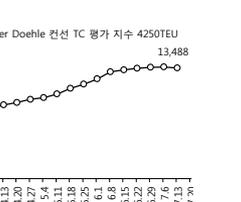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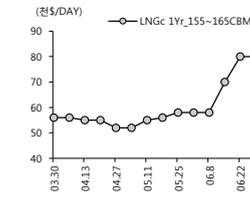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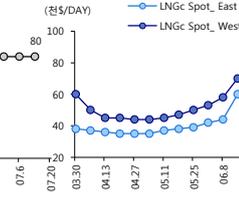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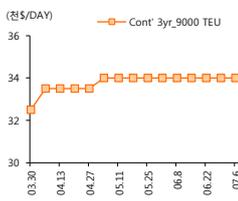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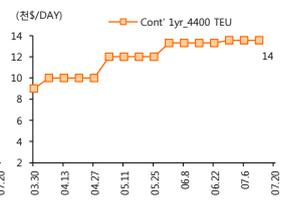
▶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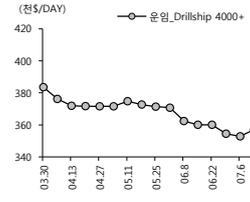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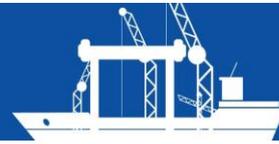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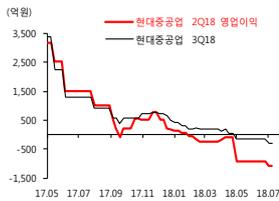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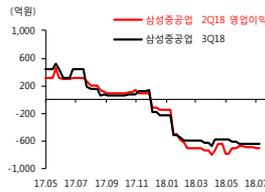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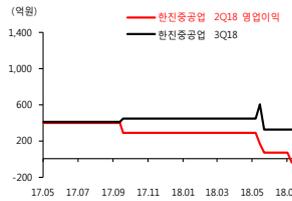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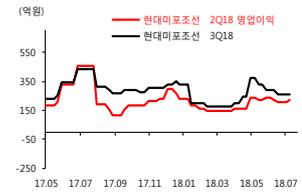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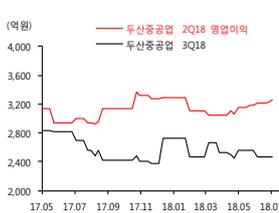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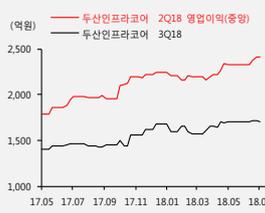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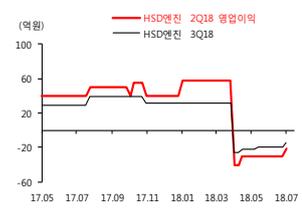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밥캣



▶ HSD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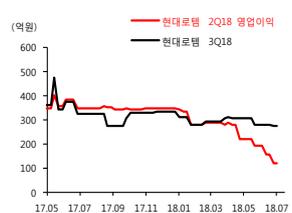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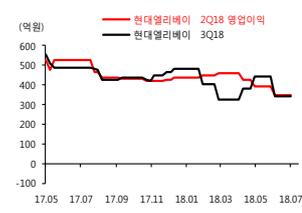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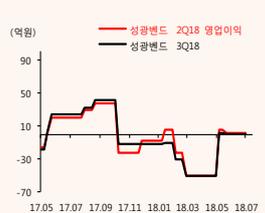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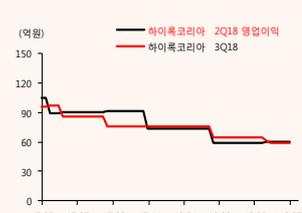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룩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8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6.16	18.06.23	18.06.30	18.07.07	18.07.13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8 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444	-1,046	-1,573	-3,232	-3,163	-3,163	-3,163	-3,082	-3,093	적지	적지	-30.8	95,400
	삼성중공업	-358	-464	-485	-372	-368	-369	-369	-369	-370	적지	적지	-17.4	6,420
	현대미포조선	3,474	2,347	2,318	5,071	7,423	7,686	7,686	7,667	7,481	48%	1%	10.7	79,900
	한진중공업	-74	-198	-16	-223	-75	-75	-75	-424	-132	적지	적지	-22.0	2,900
두산	두산중공업	1,403	1,240	1,154	851	707	707	707	708	682	-20%	-4%	20.9	14,250
	두산인프라코어	1,175	1,253	1,244	1,467	1,436	1,438	1,461	1,473	1,481	1%	3%	6.3	9,260
기계	HSD엔진	72	-122	-122	-136	-172	-236	-236	-236	-236	적지	적지	-16.9	3,995
	현대건설기계	16,053	15,369	15,148	13,657	13,782	13,782	13,719	13,645	13,570	-1%	-2%	9.2	124,500
	현대일렉트릭	10,969	7,850	7,605	4,899	3,201	3,201	3,201	2,484	2,484	-49%	-22%	23.6	58,700
	LS산전	4,852	4,671	4,537	4,858	4,930	4,965	4,997	4,997	4,997	3%	1%	15.0	75,000
	현대엘리베이터	5,603	4,351	3,609	2,558	1,915	1,915	1,915	1,915	1,915	-25%	0%	43.3	82,900
방산	현대로템	821	757	714	567	467	413	389	392	392	-31%	-16%	66.7	26,150
	한국항공우주	1,430	1,280	1,228	1,160	1,300	1,311	1,316	1,359	1,349	16%	4%	28.2	38,1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72	912	911	583	636	636	634	615	612	5%	-4%	36.6	22,400
피팅	LG넥스월	3,560	2,466	2,313	2,223	2,180	2,180	2,180	2,180	2,105	-5%	-3%	17.0	35,750
	성광벤드	-8	-9	-38	-75	-55	-55	-55	-55	-55	적지	적지	-201.6	11,100
	태광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25	7%	7%	34.4	11,150
	하이룩코리아	1,765	1,413	1,413	1,504	1,297	1,297	1,297	1,297	1,297	-14%	0%	18.4	23,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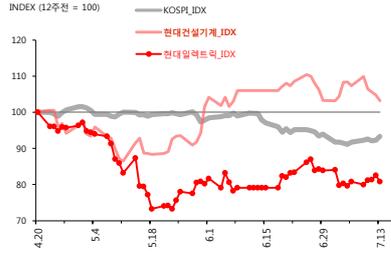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8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6.16	18.06.23	18.06.30	18.07.07	18.07.13	2018	2019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230,808	241,361	175,029	170,578	170,269	170,269	170,269	170,033	170,004	-2%	1%	0.6	
	삼성중공업	19,573	20,494	19,690	12,242	12,313	12,439	12,439	12,439	12,286	-3%	0%	0.5	
	현대미포조선	127,187	126,280	121,471	120,394	118,801	119,564	119,564	118,568	117,978	6%	5%	0.7	
	한진중공업	6,782	6,675	6,105	6,105	5,338	5,338	5,338	5,338	5,338	-2%	-15%	0.5	
두산	두산중공업	30,258	29,190	28,884	30,546	28,567	28,566	28,566	28,297	28,257	2%	5%	0.5	
	두산인프라코어	11,539	10,899	10,596	9,840	9,537	9,537	9,568	9,654	9,665	15%	15%	1.0	
기계	HSD엔진	7,947	7,612	7,612	7,683	16,017	13,937	13,937	12,043	12,043	-2%	-2%	0.3	
	현대건설기계	135,467	131,312	135,316	139,230	136,338	136,338	136,273	135,935	135,834	10%	11%	0.9	
	현대일렉트릭	111,776	106,344	111,887	108,257	107,159	107,159	107,159	105,168	105,168	2%	6%	0.6	
	LS산전	43,590	43,099	42,734	42,909	42,923	42,862	42,866	42,866	42,866	12%	12%	0.0	
	현대엘리베이터	43,206	38,338	34,285	32,217	41,903	41,903	41,903	41,903	41,903	5%	6%	2.0	
방산	현대로템	17,564	16,526	16,557	16,424	16,336	16,178	16,178	16,136	16,136	2%	7%	1.6	
	한국항공우주	14,040	12,950	12,897	12,742	12,294	12,142	12,149	11,963	11,963	11%	13%	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5,632	42,105	42,135	41,295	41,271	41,271	41,599	41,418	41,418	1%	3%	0.5	
피팅	LG넥스월	32,108	29,179	28,414	29,139	28,904	28,904	28,904	28,904	28,794	7%	10%	1.2	
	성광벤드	16,235	16,057	15,972	15,972	15,988	15,988	15,988	15,988	15,988	0%	2%	0.7	
	태광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6,473	2%	2%	0.7	
	하이룩코리아	25,343	24,832	24,832	24,832	25,079	25,079	25,079	25,079	25,079	5%	7%	1.0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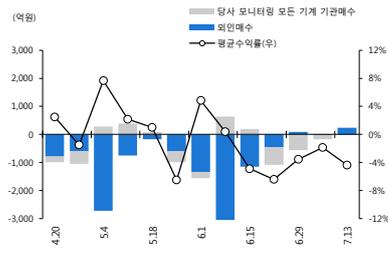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현대건설기계, 운전자 작업 돕는 스마트굴삭기 상용화

<http://bit.ly/45VOZ>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기술 기반의 스마트굴삭기 '머신 가이던스굴삭기'를 자체 개발

△ 두산인프라코어, 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 '이노프롬' 참가

<http://nr.li/V5Ya2>

러시아 건설기계 시장은 연간 판매량 6000대 규모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약 10% 수준의 시장점유율

큰 기계들

△ 두산중공업, 3600억 채무보증 결정

<https://bit.ly/2LcTcTt>

두산중공업은 KDPP제4차, FSS제8차 등이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3000억원에 대해 360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 회사 측은 "당사의 장래공사대금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KDPP제4차, FSS제8차의 사모사채-ABL-ABCP 발행과 관련해 ... 당사가 제공한 연대보증과 자금보증약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

방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지분 전량 블록딜

<http://nr.li/37MYh>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사가 보유한 한국항공우주 지분 584만7511주(5.99%)에 대한 블록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지분 모두 매각 완료

△ 현대로템 지리제거용 장애물 개척전차, 전투용 적합판정

<http://nr.li/D8XNW>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장애물 개척전차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되고 같은 해 12월 개발에 착수한 이래 약 3년 반 만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 약 86만여 발의 지리개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지리제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한국항공우주산업, 에어버스 항공기부품 공급사업 본계약 맺어

<http://nr.li/le621>

프랑스 에어버스의 부품회사인 스텔리아에어로스페이스와 A350 항공기의 기계구조물 공급사업의 본계약을 5일 체결 2017년 1월에 공급사업자 최종 선정의향서(LOI)를 받았는데 이번에 본계약이 체결 A350 항공기에 쓰일 전방동체와 중앙동체의 부품을 2023년까지 공급

△ LIG넥스원 공기관 입찰참가제한 행정소송 승소

<https://bit.ly/2zz5PIU>

IG넥스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

...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1심)했다고 12일 밝힘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9월 국산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과 관련 LIG넥스원에 3개월간의 '공기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이에 LIG넥스원은 행정소송을 제기, LIG넥스원의 소명이 인정

작은 기계들

△ 씨에스윈드, 149억 규모 공급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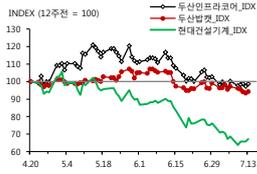
<http://nr.li/gcfIC>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4.8%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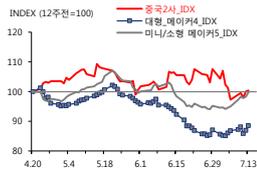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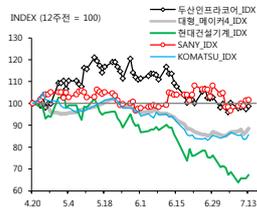
▶ 한국시장 성장 3사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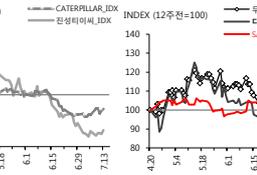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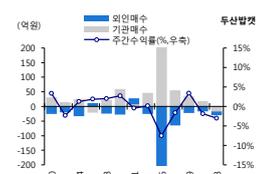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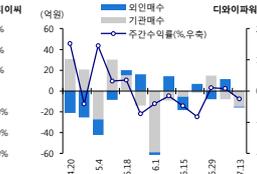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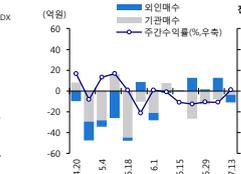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 건설장비 부품주



주식) 부품주4사: 진성티에치, 디와이피워, 중국, 동일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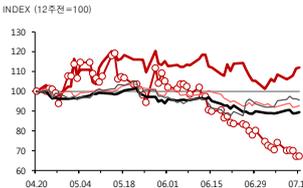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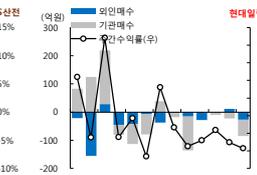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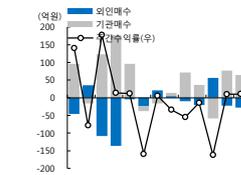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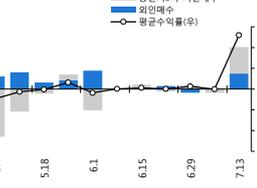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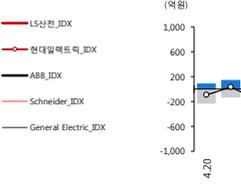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추가 Index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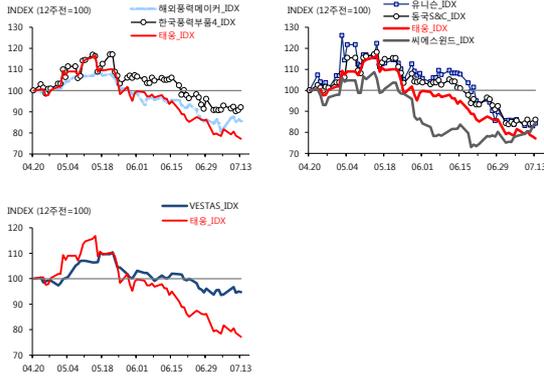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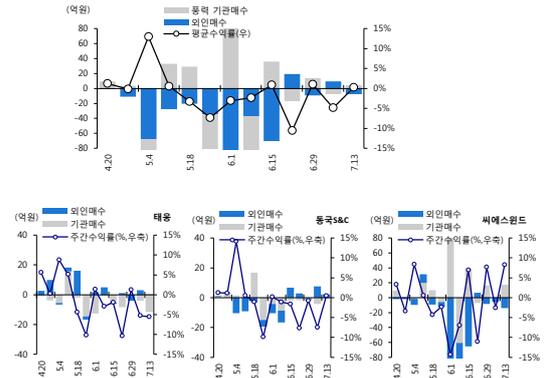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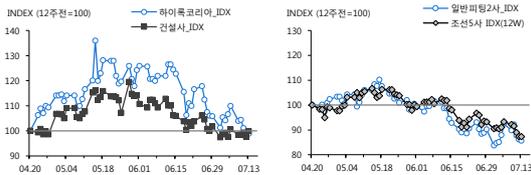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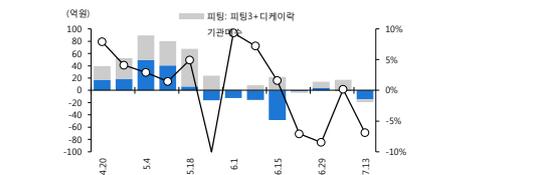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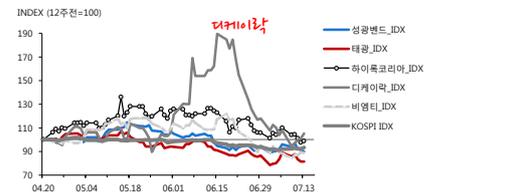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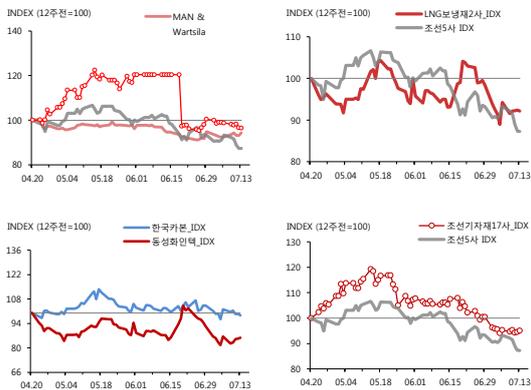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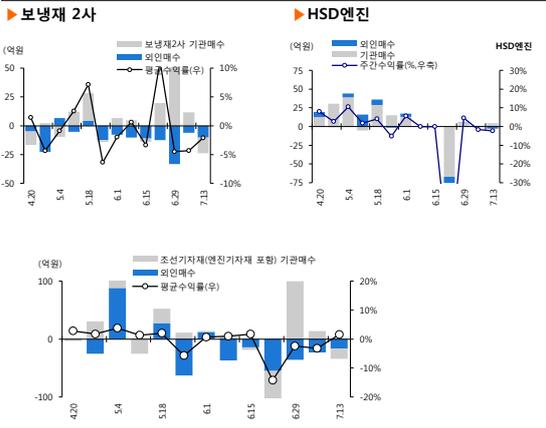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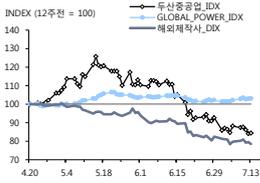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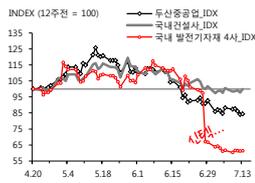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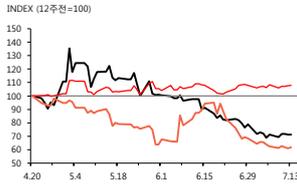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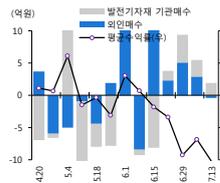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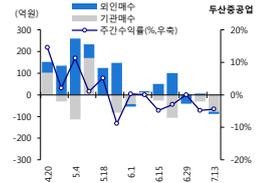


발전업 수급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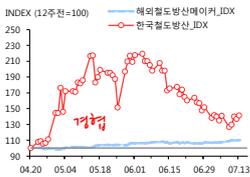


주식) 비에이치아이, S&T, 한솔신력,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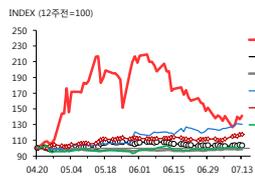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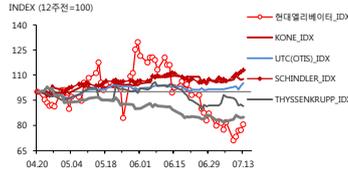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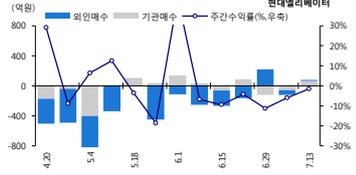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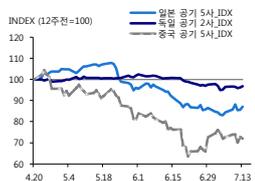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중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중립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조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 (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기종역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 권 비율(%)	93.9%	6.1%	-